

보 도 자 료

배 포 일 자	2026. 09. 11. (금)	총 3페이지	담당자	권주리 사무총장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7층 http://www.teen-up.com				
전 화	02-6348-1318	전 송	02-2690-1255	teen-up.com@daum.net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보 노출 참사! 구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책임을 묻는다.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가장 내밀한 식별 정보를 미국의 하버드 대 버크먼 클라인센터가 운영하는 Lumen 데이터베이스에 무방비로 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살아남기 위해,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했던 피해자가 유일한 통로로 여긴 바로 그 창구에서 신상이 노출되는 상상도 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2차 가해를 당했다. 가해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던 통로가 도리어 피해자를 다시 사지로 내모는 가해의 통로가 된 것이다.

제보가 빗발치며 사태가 불거지자 그제서야 구글은 부랴부랴 “의도치 않은 정보 노출”로 “기술적 보완책”과 “채널의 신뢰성 재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사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민감정보 유출이 어떤 시스템적 결함으로 일어났는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인지는 단 한 줄도 밝히지 않았다. 경위와 대책이 빠진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사안을 서둘러 덮어버리려는 ‘상황 종료용 면피’에 불과하다.

1. 구글의 시스템적 방조와 기만적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피해자 지원 절차의 가장 기본은 ‘철저한 보안과 신뢰’다. 그러나

구글은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데이터를 다루며 최소한의 비식별 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외부 데이터베이스로 연동 노출되도록 방치했다.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걸러낸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제보가 빗발치자 그제야 마지 못해 고개를 숙였다.

글로벌 무대에서는 인권과 아동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던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정작 한국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 앞에서는 가장 취약하고 허술한 시스템을 방치해 온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피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정보가 전 세계 어디까지 퍼져나갔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감당하고 있다.

2. 정부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징벌적 책임을 즉각 물어라!

성평등가족부가 관련 법 위반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나, ‘검토’라는 안일한 말 뒤에 숨어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다. 언제나처럼 구글도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핑계로 책임 추궁이 흐지부지된다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여타의 해외 플랫폼도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은 즉각 개입해야 한다.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닌 피해자의 생명권을 위협한 중대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정 최고 수준의 제재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지난 세월 피해 아동·청소년과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창구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파제여야 한다고 외쳐왔다. 국가와 글로벌 플랫폼의 태만으로 그 방파제가 무너져 내린 이번 참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1. 구글은 삭제 요청 데이터의 외부 노출 경위, 노출된 피해자의 정확한 규모, 열람된 로그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1. 구글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대책과 함께, 삭제 지원 시스템 전면 개편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대중 앞에 공표하라.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속한 합동 조사에 착수하여 위법 사실을 명백히 규명하고, 법정 최고 수위의 엄중한 제재를 가하라.

1. 정부와 국회는 해외 플랫폼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삭제·신고 창구를 운영할 때 지켜야 할 엄격한 정보보호 의무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법제화하라.

우리는 구글의 오만한 몇 줄의 사과 뒤로 이번 사안이 조용히 묻히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플랫폼의 무책임이 피해자의 삶을 다시 파괴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고 감시할 것이다.<끝>

*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아동·청소년/사이버/성착취(성매매 등) 관련 이슈 생산과 연대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성매매 등) 방지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연대 등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십 대 여 성 인 권 센 터